

남북정상회담 D-4

청와대 대통령 방북 준비 착착

노대통령 '아리랑 공연' 관람

북측 제의 수용...대통령 내외 수행 대표단 300명 명단 확정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남북정상 회담을 위한 북한 방문기간 중 북측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로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노무현 대통령 내외를 수행할 300명의 대표단 명단을 확정했다.

백종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이번 정상회담 방문 기간 중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청한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리랑 공연 관람 결정 이유를 '기본적으로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손님으로서 초청적인 북측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제 과거 대결

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체제 인정, 존중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다만, 일부 문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으나 북측도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입장을 고려, 수정하여 공연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측 주민들이 나름대로 성의껏 준비한 공연을 대승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리랑 공연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우리 국민 1만여 명과 외국 의 정상급 인사들이 관람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행원 명단을 공식 13명, 특별 49명, 일반 8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면서 "특별수행원이 48명에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특별수행원으로 추가돼 49명으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취재진 50명도 대표단에 포함된다.

그는 이어 "200명 이외에 행사 진행에 필요한 만찬 진행자와 중계인원 등도 98명으로 확정했다"면서 "총 인원은 대통령 내외분과 98명, 200명 등 총 300명"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2차 선발대 방북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선발대 주요 인사들이 27일 오전 출발에 앞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 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개성공단' 합의하나

정부, 해주·남포 등 후보지 물색

정부가 다음달 2~4일 열리는 남북 정상 회담에서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는 방침에 따라 그동안 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2의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몇 군데 후보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종현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경제분야에서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경험문제가 좀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간에 몇개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당국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로 ▲해주 ▲남포 ▲나진·선봉 ▲원산 ▲신의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제2 개성공단을 건설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하고 추후 장관급회담이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공단 후보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대세적이다.

/연합뉴스

■ 50여년만에 간첩혐의 누명 벗은 죽산 조봉암은

진보 정치인... 50년대 두 차례 대통령 출마

진실화해위가 조봉암 선생의 사형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은 1959년 사형이 집행된 지 48년만으로 고인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할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과 간첩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 또한 1,2,3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독립운동가이자 진보 정치인으로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조봉암 선생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것은 이승만 정권에 위협이 될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분석했다.

해방 후 공산당을 탈당해 1대와 2대 국회의원, 초대 농림부장관 등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1952년과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80여만표, 200여만표를 얻었다. 또 1956년 11월에는 진보당을 창당했다.

조봉암 선생은 그러나 민의원 총선을 앞둔 1958년 1월 국가변란 혐의로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전격 체포됐다. 때맞춰 육군 특수대는 같은 해 2월 HID 공작요원인 양이섭을 한 달 동안 감금 조사한 결과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

속칭 '진보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1959년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재판 받고 있다. 사진 맨 왼쪽이 조봉암 선생. <광주일보 자료사진>

했다'는 자백을 확보하고 조봉암 선생에 대해 간첩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에 검찰은 조봉암 선생을 국가변란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당시 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만약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경우에는 최근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배상판결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국가 배상금도 받아낼 수 있다.

조봉암 선생의 장녀 조호정(80)씨는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대해 "그 동안 너무 힘이 들었다. 끔찍한 기억들도 많았다. 그래도 이번에 결정이 잘 내려질 거라는 귀뜸을 들어서 추석 전에 아버지 묘소에 가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宋 외교,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사격'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를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제62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송 장관이 총회기간 다양한 양자회담을 통해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송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열린 '리오

그림'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는 한·중·남미 국가들간의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리오그림은 중남미 지역 최대 정치 협의체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18개 회원국과 매년 윤번제로 참석하는 카리브지역 1개국 등

19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송 장관은 또 중남미 안티구아 바부다의 윈스턴 블랜드 스펠스 수상 겸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안티구아 바부다에 대한 개발원조 사업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서남해안 특별법' 반드시 처리"

정치권·재계·학계 국회 통과 촉구 나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 될 '서남해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재계, 학계가 발벗고 나섰다.

박재순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유영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 신철호 목포해양대 총장 등은 28일 오전 국회를 방문, 서남해안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윤두환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만나 "낙후된 서남

해안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남해안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서남해안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상임위는 물론 한나라당 중앙당에 적극 건의,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특별법은 일부 조항에 대한 손질을 거쳐 다음달 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심의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조직개편안 의결 의견충돌 광주남구의회 의장 사의

광주 남구의 조직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유정심 남구의회 의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의견충돌을 빚어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 때 국대원 신철과 무보직 6급 4명 증원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고, 유 의장은 이에 반대한 뒤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편안은 예초 구가 제출한 안에서 무보직 6급 인원이 2명 감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심의를 담당하던 해당 상임위원 가운데 4명은 유 의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증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고급한 생활에 감성으로까지 증가집의 명품을 자랑하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을 준비하고 있는 최첨단 하우징 도시건설사입니다.

【특징】 실용성, 디자인, 안전성, 편의성, 공기청정, 도자기천공, 도색법

증가집 설령탕

예약전화 062)374-0015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기하리의 행복 물레이브로

최저조절과 원거리 원격 난방까지

무등산업

1662-7711-2005, 011-6611-7711